ISSUE BRIEF

이슈브리프 282호
(2021. 8.13)

미중경쟁구도가 북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제282호

이수석 · 안제노 한반도전략연구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www.inss.re.kr

국문초록

미중경쟁은 새로운 냉전을 유발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여러모로 크다. 미중경쟁구도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대미 외교 운신 폭이 축소되고, 한미동맹 강화로 한국의 대북억지력이 강화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중국을 완전한 북한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도 있다. 미중대립 구조에서 북한은 다시 한번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과거 냉전시대라면, 무조건 미국을 배척하면 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주도의 경제질서 속에서 미국과의 대립으로만 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은 미중 사이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며, 새로운 비핵화 협상틀을 통해 북미관계, 북중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하려 할 것이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에서 국제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미중대립구도를 활용한 이른바 '신등거리 외교'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핵심어 : 미중갈등, 신등거리외교, 북한전략

미중경쟁구도가 북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이수석 · 안제노(한반도전략연구실)

미중경쟁과 한반도 정세

미중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과거 냉전시대 양극질서와도 또 다른 형세이다. 이제 중국은 미국의 질서에 순응했던 과거의 국가가 아니다. 미소 냉전질서에서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수교에 적극적이었다. 당시 세계질서를 미국 중심의 구도로 전환시키기 위해 소련과 이념적으로는 동질성을 지닌 중국을 국제무대로 진출시켜 소련과의 경합상태를 조성하고자 했다. 이런 미국의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미중 협력을 바탕으로 소련을 압박했고, 소련은 국제질서에서 고립감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군비확장에 몰두하다가 내부 경제개혁을 등한시한 탓에 붕괴했다.

2000년대가 도래하기까지 20여 년 동안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미국 중심의 질서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기존의 국제정치질서에 대한 반격 등 중국문제로 인해 미국 내부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미국은 너무 일찍 중국을 세계무대에 데뷔시켰다는 질책도 받았다.

한편 미국은 동맹을 중시한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은 기존의 동맹국 중심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힘을 모으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동맹국이 별로 없어서 국제질서 창출에서 미국보다 불리한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의 미중경쟁 구도에서 중국이 미국의 경쟁상대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이와 상황이 다르다. 미중경쟁은 새로운 냉전을 유발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북한에게는 여러모로 파급효과가

크다. 이런 미중경쟁 시대에서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과거 냉전시대 중소갈등에서 북한은 등거리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을 추구했다. 이런 경험을 가진 북한이 미중경쟁시대에 어떤 대외정책을 수립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부정적 영향

첫째, 미중갈등으로 북미 간,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의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북한의 대미외교 운신폭이 축소될 수 있다. 미중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시기에는 대화와 협상의 장이 그만큼 확대되어 많은 회담들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기에 북한의 대미정책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존재했다.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되고 교착된 시기에도 때론 중국이 중재자로서 북한과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중갈등이 격화될 때에는 남북 및 북미대화 재개의 여지가 축소될 수 있다.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내심 남북 간의 지나친 협력으로 북한이 친미화하거나 미국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북한의 대외·대남정책의 다변화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갈등으로 인해 한반도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으로서는 북미대화의 재개에 부정적일 수 있다.

둘째, 미중대립의 확산으로 북핵문제, 북한문제가 국제적 성격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간의 긴장과 갈등이 동북아지역의 정치군사적 문제로까지 확산될 경우, 북한 비핵화 과정과 대북제재에 관해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대북경제지원 등 대북제재 공조에 틈이 발생하고,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전반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강화될 경우, 이는 북한 비핵화에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 와중에 미중은 북핵문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여, 상당 기간 대결구도 속에서 주변국들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경쟁은 북한의 대외환경을 변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북한이 미국과 점차 대등한 경쟁을 벌이고자 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수록 미국으로부터의 제재가 강화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대치 중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미국은 북한을 중국과 패키지로 간주하여 세계질서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하려고 할 것이다.

셋째, 한미동맹 강화로 한국의 대북억지력이 강화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방위력 증강이 필요하고 한미동맹 강화로 한반도 군사분쟁에 대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방위태세를 확립하여 한국의 대북억지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군사력 확장 혹은 군사적 주도권 장악을 어렵게 만든다.

긍정적 영향

첫째, 미중경쟁은 북한에게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을 완전한 북한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한때 우호적이었던 북중관계에서 변화가 발생한 계기는 1970년대의 미중 데탕트였다. 냉전시기의 북중동맹은 한미동맹에 대항하는 성격을 가졌으나,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면서 북중 양국은 대미 위협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북중간 갈등이 발생한 또 하나의 계기는 북핵문제의 대두였다. 실제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에 대해 중국은 북한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으며,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북한은 중국에 대해 거센 비난을 가했다. 그러나 미중경쟁구도가 조성되고 미국의 대중국압박이 거세지면서, 중국은 북한의 가치를 다시 인정하게 되고 북핵문제에 관해서도 북한의 전략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둘째, 대북제재 완화 측면에서 중국이 대북무역거래 및 물자교환을 비공식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동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되고, 경제적 고립도가 심화되었다. 코로나19,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 대북제재라는 3중고로 북한이 체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갈등은 북한의 경제난을 일정한 정도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동안 북미협상이 북한의 미국 경사를 불러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왔던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대미전선의 선봉에 내세우고자 단절된 북한과의 무역거래, 국경에서의 물자 교환을 일부 허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할 것이다.

셋째, 중국이라는 뒷배를 둔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강경한 대남·대미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적 공격 혹은 대북강경 군사적 움직임을 방어하거나 대미강경정책을 전개하는데 중국과의 공동협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가능케하는 계기가 최근 갱신한 북중우호조약이다. 그동안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중 밀착관계는 북한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다. 이는 결국 미중갈등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신등거리외교 모색

현재 북한이 가진 외교적 자원은 핵과 미사일이다. 핵과 미사일을 통해 북한은 생존을 위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북한이 중국의존형 외교 및 언술을 구사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적대관계 종식에도 관심이 많다. 즉,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도 친선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지난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북한은 중국의 후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미협상력을 강화하고 외교적 지지기반을 확대시켰다. 당연히 북한은 미중대립구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국익을 실현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미중갈등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에 새로운 역학구도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북미관계 개선은 중국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한다. 이런 점을 간파한 북한이 미중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즉 미중대립구도를 활용한 이른바 '신등거리외교'를 전개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6년 동안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한 시진핑이 북미 정상회담 전후 5차례나 북중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중압박을 위해 북한과의 획기적인 회담을 개최할 수도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도 북한은 중소 갈등을 이용하여 국익을 추구했던 적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강대국들 간의 갈등에 당황했으나, 주체외교라는 담론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모색을 통해 중소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잘 적응한 바가 있다.

현재의 미중대립구조에서 북한으로서는 다시 한 번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과거 냉전시대라면 무조건 미국을 배척하면 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주도의 경제질서 속에서 미국과의 대립으로만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다. 미국으로서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 북한은 새로운 등거리외교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 및 북중 친선관계 유지를 모색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새로운 비핵화 협상틀을 통해 북미관계, 북중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하려 할 것이다. 국제정치는 냉혹한 현실이기에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변모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남북통신선 복구와 차단은 대표적 사례이다. 갑작스러운 북한의 남북통신선 복구와 차단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이어 대북제재 완화가 목표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의 목표는 미국과의 대화에 있으므로 북한은 향후 이와 연동하여 국제적 발언권의 확장과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를 위한 기본 포석을 두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미 북한은 신등거리외교 전략에 따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관계도 엄연한 국제정치적 현실인 바, 협력과 경쟁이 병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신등거리외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